

##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 12강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며 : 두 번째 출애굽

출애굽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출애굽 이야기로 마쳐야겠다. 성서는 출애굽에 대해서 곳곳에서 보도한다. 출애굽기를 보며 우리는 당연히 ‘출애굽기서’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성서는 한 번의 출애굽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조금 낯설지만 성서는 두 번의 출애굽 이야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번의 출애굽,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

#### 두 번째 출애굽 - 성서적으로

출애굽과 긴밀하게 연결된 것은 광야 이야기이다. 성서, 특히 호세아서에는 광야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서술되었다. 그런데 광야 모티브는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상이하다. 출애굽기의 광야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점철되었다.

호세아 2: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를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간다. 그런데 15절을 볼 때 이러한 모습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서는 출애굽 하던 것 같은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다시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하여 호세아 11장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호세아 11:1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자(夫子) 관계로 서술한다. 이러한 모습은 성서에서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불러내는 원인을 호세아 11:5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앓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호 12:1).

하나님 이외에 다른 권력을 의존하려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마치 제1계명을 어기고 있음을 확인한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불러낸다. 이것은 때로는 심판으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성서를 읽어가다 보면, 심판이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만들 것이다(호 12:9).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처럼 성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리라 선언한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내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불러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호세아 12:9은 그것을 행하는 목적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배교로 점철되었고, 급기야 하나님을 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른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시기이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광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이었다. 광야는 그들에게 육체적으로 고난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만을 알았던 유일한 시간이었다. H. W. Wolff라는 학자는 이것을 원점상황(Nullpunktsituation)으로 표현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다.

이처럼 호세아에서 출애굽 광야는 긍정적으로 등장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과 부자 관계를 맺는 곳이다.

## 두 번째 출애굽 -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 이외에도 또 한 번의 출애굽을 이야기한다.

이사야 35장은 '광야와 메마른 땅'을 보여준다. 광야이지만 이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다. 백합화가 피고, 기쁜 노래들이 흘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사막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연못과 물이 넘쳐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 에스라는 바로 그 사건을 보여준다.

에스라 1장은 소위 고레스 칙령으로 불리는 본문이다. 먼저 고레스라는 인물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대왕이다. 이사야 45:1에서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로 등장하기도 한다.

그가 내리는 칙령의 내용은 간단하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스 1:3)

고레스가 점령한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그곳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었다.

물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향으로 생각했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 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바벨론에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출바벨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해야 한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출바벨론 사건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린 것이다. 이러한 고레스 칙령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와 명확히 비교된다.

그들이 출애굽 할 때 모습은 어떠했는가? 출애굽기 14:5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도망쳤다'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도망 나온 이후에 곧바로 애굽 군대의 추격으로 위기에 빠졌다.

게다가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유월절을 잘 알고 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되는데,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출애굽이 아주 긴박했음을 알려준다.

그것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 1:3절이다. 왕이 칙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은 더 이상 도주하거나, 급히 준비하여 남의 눈을 피해 나갈 필요도 없다. 또한 페르시아 군대가 뒤에서 추격할 염려 또한 없다.

그들은 빈손으로 귀환한 것도 아니다. 에스라 1:6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사용할 예물을 바쳤다. 공개적으로 모금이 있었다. 더 나아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레스의 조치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고레스는 여호와와의 성전 기명을 넘겨주었다. 그것은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가져갔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역대하 36:7에서도 확인된다.

성전 기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정체성과도 결부되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출바벨론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스라엘과 명확히 비교되며, 이 사건은 모든 면에서 출애굽 사건을 뛰어넘는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출애굽 사건의 비중이 크지만, 역사적 측면에서는 출바벨론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난 12주를 통해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다. 짧은 시간에 출애굽기를 모두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다. 저는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해서 무심코 넘어갔던 것들을 새롭게 보려 시도했었다. 말씀을 고정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다각도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다 넓은 하나님 말씀의 지평을 가져다줄 것이기 때문이다.